

# 능력은 모두 같다. 차이는 하고 안하고에 달렸을 뿐

## 前 전국수좌회 의장 영진 스님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8월 21일-9월 25일 매주 일요일 선지식 초청법회를 진행 중이다. 前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영진 스님이 첫 번째 초청법사로 법석을 열었다. 영진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수승함을 알리면서 신심, 분심, 의심 간화삼요(看話三要)를 설명했다.

### 정리-이상연 기자

구름이 끼었다고 태양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구름이 끼었을 뿐입니다.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름을 벗겨내어 열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무명(無明)은 모든 괴로움의 시초입니다. 불교에서 무명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죄는 큼니다. 이미 밝아 있는데 무명의 구름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밝은 태양, 본래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무명의 구름을 한 꺼풀 한 꺼풀 벗겨내는 작업이 수행입니다.

불교는 누가 뭐라 해도 수행의 종교입니다.

2600여 년 전 서쪽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은 한 손으로는 하늘을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홀로 높다. 중생이 사는 이 세상은 모두 고통이니 내가 마땅히 편케 하리라는 뜻으로 원력 탄생을 의미합니다.

본분자리에서 보면 이마저도 부질없습니다. 본래가 고요하고 고요해서 자연 그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원만하게 구축해 있습니다. 자신이 진리의 왕자 즉 법왕자(法王子)이면서도 법왕자인지 모르고 중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팔만사천법문을 한마디로 응축시키면 마음 심 '心'으로 규결됩니다. 이것이 진여(眞如)의 마음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서는 진여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왕자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수업을 합니다. 달라이라마도 14대 짜 달라이라마로 환생한 분입니다. 티베트에서는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면 5년간 새로운 달라이라마를 찾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달라이라마는 혹독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수행을 해 달라이라마로 우뚝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확인 할 수 있도록 수행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수행에는 선행을 쌓고, 경전을 외우고, 절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수용해 우리가 본래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참선 수행

수행 중 최고의 수행은 간화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화두(話頭)를 갖고 수행하는 참선법인 간화선(看話禪)을 간택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화선은 송나라 임제종 양기파 문하의 대혜종교(1089~1163) 선사가 정립했습니다. 조동종의 광지정각(宏智正覺)이 목조신을 표방하자, 임제종 대혜종교 일파는 달마의 선법을 애국했다고 보고 화두를 깨치는 수행법을 창안했습니다.

당시 간화선은 최고 지식인들의 수행법이었습니다. 대혜 스님이 사대부들에게 '선공부에 관한 여러 요지'를 대답해준 편지글 <서장(書狀)>에 수록된 62편의 서신

구름이 하늘 가득하게 끼어도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무명에 가렸을 뿐 수행이 어렵다면서 미루지 말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수행하십시오

은 승려 2인, 여성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대의 지식인, 관료 등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주고받은 글입니다. 당대 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했던 것입니다.

간화선은 많은 지식인에게 머리를 굴려 만드는 번뇌를 일거에 부수도록 합니다. 이처럼 간화선은 상상근기(上上根機)를 위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편리한 말을 하지 말고 바른 말만 하라'고 합니다. 또한 신분에 맞추어 말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만 믿으면 극락 간다고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서 안됩니다.

간화삼요(看話三要)=신심, 분심, 의심  
간화선에서는 중요한 3가지 준비과정이 필요함입니다. 이것을 간화삼요(看話三要)라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 대신념(大信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모든 선근을 증장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근본은 하심(下心, 자기낮춤)에서 비롯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작은 아상(我相)마저도 버려야 큰 믿음이 생깁니다.



영진 스님은... 1972년 김제 금산사에서 도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용봉 스님과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1999~2001년 조계종 기초선원장 겸 동화사 선원장을 맡아 간화선 교육에 힘썼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문경 대승사 임자인 묘적암에 주석하고 있다. 봉암사, 해인사, 통도사, 백담사 무궁선원, 은해사 기림암 등 제방 선원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다.

<화엄경>에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고 했습니다. 믿음은 뿌리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튼튼해야 합니다. 믿음이 확고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영험이 없는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제 금산사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 보살이 주지 스님을 찾아 절에 자주 왔습니다. 어느 날 보살이 "관세음보살보다 더 영험있는 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

다. 제가 "영진 대사를 찾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보살은 제 범람이 '영진' 인지 몰랐고 저 역시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거철을 맞아 선방을 갔습니다. 해제하고 돌아오니 그 보살이 "영진 대사, 영진 대사..."하고 영불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근본은 하심(下心)입니다. 우리가 절을 할 때에는 이마를 땅에 대고 두 손을 올립니다. 내 머리를 상대방의 발아래에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상(我

相)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버려야 합니다.

수행자는 모든 일이 수행과 연결돼야 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수행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물이 바다를 향하듯 수행자는 모든 일상생활이 수행과 연결돼야 합니다.

최고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절에 오면 행자 생활을 합니다. 행자 생활은 수행자가 평생 혼자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며, 세속의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내는 하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수행자가 되기 때문에 행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행자로서 늘 하심하여 신심을 증장시켜야 합니다.

### 둘째는 대의심(大疑心)입니다.

대의심은 말과 생각으로만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한 가지에 집중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스승을 만나 화두를 받을 때에는 생사(生死) 대사의 가장 근원적인 본래면목을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대추 한변 해보자는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큰 스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스님을 만나 내 근원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오체투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가서 "어떤 것이 본래면목입니까?"라고 질문하면 스승은 그 순간 깨달음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때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왜인가"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행주좌와 어묵동정 사라지지 않습니다. 꼭 박힌 의심 덩어리가 돼야 합니다. 의심을 하는 나와 큰 스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면 대의단(大疑團)이라고 합니다. 주객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 중에는 "화두가 잘 들린다"고 말합니다. 드는 내가 있고, 들려지는 것이 있는 것은 주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두는 틀이 없어야 합니다. 틀이 있으면 세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막혀서 어쩔할 수 없는 것이 돼야 합니다.

화두를 참구할지언정 사구(死句)를 참구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활구(活句)로 참구하면 견성성불(見性成佛)할 수 있지만, 사구(死句)로 참구하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랬을까 저랬을까"하는 것은 사구입니다. 활구는 유후되지 않는 말입니다. 철저히 막고 막아서 오직 그것 하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대분심(大憤心)입니다. 스스로 부처임을 깨닫지 못하고 번뇌망상에 빠져 있는 자신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본래 마음을 찾기 위해 더욱 수행정진하게 됩니다.

용맹정진, 100일 정진 수행을 해보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고 선방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좌절할 때 더 의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대분심입니다.

공민왕의 왕사(王師)였던 내용 선사(1320~1376)는 50대에 열반했습니다. 천하의 선지식들을 보면 젊은 나이에 도인이 돼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 "왜 나는 이 모양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대분심을 내야 합니다. 재산 많은 것을 탐낼 일이 아닙니다.

망월사 조실하신 춘성 스님 (1891~1977)은 만해 한용운 스님 제자로 목욕이로 유명합니다. 춘성 스님은 평생 독방을 쓰지 않고 대중생활을 하며 수행정진한 스님이었습니다.

춘성 스님의 발심 계기가 대분심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춘성 스님은 당시보다 젊은 수좌인 성철 스님이 수행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장좌불와 8년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한 성철 스님이 실제로 밤새 미동도 하지 않고 장좌불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고 발심한 춘성 스님은 평생 선방에서 취침시간을 알리는 죽비를 치고 30분이 지나 밖으로 나가 밤새 도량돌며 포행정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상 시간인 3시 20분 전에 대중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분심은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합니다. 지도 한 때는 선방에서 취침시간이 되면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스님들이 석상처럼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후배스님들도 저렇게 하는데..."라며 분심을 일으켰습니다. 대분심이 있어야 공부를 합니다.

다만 안할 뿐이지 능력은 똑같습니다. 분심을 일으켜서 하십시오.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왜 하던거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 지요... 여러분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무상심과 분심을 가지고 공부할 해야 합니다. 화두를 가지고 철저히 마음을 비우고 하심하고, 믿고 공부하고 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는 수행자가 되길 바랍니다.

## 산승이 정성껏 사경한 반야심경사경 작품 보급



산승이 정성껏 사경한 반야심경사경 작품의 보시기는 불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승 반원 010-3599-6653  
금산선원 : 부산시 사상구 감전 1동 122-39

산승 반원은 정진기도를 하면서 반야심경 사경을 하였습니다. 통도사 문수원에 주석하시는 수안 큰스님 은사로 모시고 반야심경에 대한 지도 아래 하루도 빠짐없이 20여년을 반야심경사경 참선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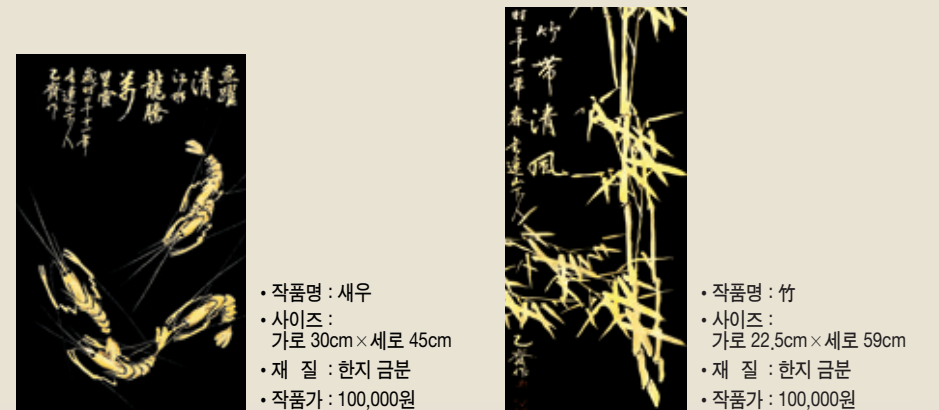
반야심경 사경기도는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정토에 이르시라고 자서부터 참선으로 사경을 하며 백중날 회향하고 또 불자님을 위하여 원상을 그리고 육바라밀을 마음에 담아 사경을 하여 인연 있는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행복하고 소원성취 하라고 20여년을 보시해 왔습니다.

원상을 그리는 것은 하나요, 우주 전체입니다. 경을 육각으로 쓴 것은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모든 가운데 육각에서 생기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경입니다.

15년간 뇌졸중 투병 생활 속에 고통을 참으며 반야심경참선 기도를 하였습니다. 2001년 9월 말일(부처님의 가피력으로 9년간 사경 참선 공덕으로)그날 밤에도 자시에 사경 후 머리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팽 하기에 이제야 육신을 버리는구나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구름을 타고 저 세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 주신분이 나타나 할 일이 남아 있으니 갈 수 없다며 25년 생명 연장하라 하면서 저 무거운 육신을 더 짊어지고 다닐 필요 없다며 죽비로 이마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마는 뺨 돌려 버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병은 간곳없고 맑은 정신으로 지금 산승 반원은 새 생명으로 반야심경 사경에 혼을 담아 수행정진 하고 있습니다. 산승 반원은 마감하는날까지 사경 참선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기도 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을 소지하게 되시면 한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을 보시하시는 분은 향후 불사를 할 경우 반드시 건립비에 이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산승 반원 합장



• 작품명 : 새우  
•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 재 질 : 한지 금분  
• 작품가 : 100,000원

• 작품명 : 竹  
• 사이즈 : 가로 22.5cm x 세로 59cm  
• 재 질 : 한지 금분  
• 작품가 : 100,000원



• 작품명 : 달마  
•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 재 질 : 한지 금분  
• 작품가 : 50,000원

• 작품명 : 연꽃달마  
•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 재 질 : 한지 금분  
• 작품가 : 50,000원

• 작품명 : 십장생  
•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 재 질 : 한지 석재 혼합  
• 작품가 : 300,000원

위 작품은 불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일체 서명한 선생님께서 기증하는 작품입니다. 아래 작품을 소장하시어도 불사에 크나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체 선생님의 작품세계는 홈페이지 [www.sycart.co.kr](http://www.sycart.co.kr) 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